

## 近畿夜間中学校連絡協議会 教材作成委員会・「にっぽんご」について

桜井 克典（さくらい かつのり）

### 教材集 編集の意図

近畿夜間中学校連絡協議会（以下、近夜中協）の中に加盟する夜間中学校には、学齢期に、社会の矛盾、なんらかの事情のために学習を保障されないまま今日に至った人たちが学んでいる。夜間中学校に学ぶ事実は同じでも、生徒たちの学習の動機や学習要求、また学力の実態は、多様であり、夜間中学校の歩みとともに変化してきている。

1970年代後半、このような実態の中で、各学校では、学級編成、教育課程、指導方法等に、さまざまな工夫をし、指導を進めてきた。近夜中協では、以前は各教科の研究部会でこのような実態をふまえての指導の在り方を研究してきたが、それぞれの学校での実践が共同研究として深められていく段階には至らなかったことを踏まえ、具体的な教材集を作成することによって共同研究の実をあげることになり、「教材作成委員会」が発足した。その第一歩として小学校不就学の生徒が、国語（日本語）を学習していく場合「ひらかなの指導」に焦点をしばって、教材集を編集する作業をすすめ、学校がこれまで実践してきた教材を収集し、教材集「ひらかな」の作成を進めてきた。

その後、4～5年かけて「かたかな」・「にっぽんご」1～4を作成する。（「にっぽんご」1～4の数字は、生徒の日本語の力の段階に応じて作成している）

発刊以後、そのねらいや実践上の課題については近夜中理事会、分科会、研究集会、全夜中研大会での討議に訴えていった。

その後も2年毎に「にっぽんご」1～4の作成を積み重ねていった。その際の教材作成の視点・ねらいは、以下の通りである。

- ・日常生活に密着した題材を選ぶ。
- ・夜間中学校の歴史や意義を学び、自覚と誇りをもつことができるもの。
- ・日本と朝鮮のつながりを歴史と文化の両面からとらえるもの。
- ・多国籍にわたる民族と文化を相互に理解し認め合い、連帯感を育てられるもの。
- ・部落問題、障害者問題、女性問題、反戦・平和学習、国際連帯など、各分野での解放教育につながるもの。
- ・自らの生活や生い立ちを綴ることで、自己解放させるもの。
- ・夜間中学に在籍する生徒の年齢・言語・文化・就学歴・生活経験などを考慮する。学ぶ意欲を引き出し、心の触れる内容を考え、人間として生きる視点を考えさせる。
- ・夜間中学生の学びで大切なものを考えさせる。
- ・なぜ日本語を学ぶのかを考えさせる。
- ・在日や引揚げの生徒、また新渡日の生徒の増加も考慮に入れる。
- ・日本語教育や日本語識字との違いを明確にする。
- ・すぐに使える教材を考える。
- ・在日朝鮮人や引揚げの生徒の視点から教材を作成し、自国の民話なども利用する。

教材(日本語)の読み書きを通して自分のことを知り、社会を知る。そして、実社会での自立につながる事を目指す教材が必要であるとの考えのもと作成されてきた。そのための、生徒の実態、状況把握を粘り強く確実にこなしていく必要がある。

※ 夜間中学校は公立学校ではあるものの、法整備が十分になされていなかった。そのため、ある意味、生徒の実態に合わせて、自由に教材設定し運用できた面がある。2016年に教育機会確保法成立後、2017年の学校教育法施行規則が一部改正され、夜間中学校においては、実情に応じた特別の教育課程を編成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旨、条文の中に明記されるようになった。

## 킨키야간중학교 연락협의회 교재작성위원회 · 「일본어」에 대해

사쿠라이 카즈노리

### 교재집 편집의도

킨키야간중학교 연락협의회에 가맹한 야간중학교에는 학령기에 사회의 모순이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학습이 보장되지 못한 채로 오늘날에 이른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야간중학교에서 배우는 사실은 같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동기나 학습요구, 학력(學力)의 실태는 다양하며 야간중학교의 역사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0년대 후반에 각 학교에서는 학급편성, 교육과정, 지도방법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지도해 왔다. 킨키야간중학교 연락협의회에서는 예전에는 각 교과 연구부회에서 야간중학교의 실태에 입각하여 지도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각 학교에서의 실천이 공동연구로서 심화되는 단계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재집을 작성함으로써 공동연구의 내실을 다지게 되어 「교재작성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위원회가 발족된 후의 첫걸음으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학생이 국어(일본어)를 학습하는 경우의 「히라가나 지도」에 초점을 맞춰 교재집을 편집하는 작업을 진행, 야간중학교가 지금까지 해 온 교재들을 수집해서 교재집 「히라가나」를 작성했다.

그 후 4~5년의 시간을 들여 「가타카나」·「일본어」1~4를 만들었다(「일본어」1~4의 숫자는 학생의 일본어능력의 단계에 맞춰 만들었다).

발간 이후 그 목적과 실천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킨키야간중학교 이사회, 분과회, 연구집회, 전국야간중학교 연구대회에서의 토의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 후에도 2년마다 「일본어」1~4를 만들고 있으며 교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그 시점·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재를 고른다.
- 야간중학교의 역사와 의의를 배우고 자각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
- 다국적에 걸친 민족과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인정하며 연대감을 기를 수 있는 것.
- 부락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반전·평화학습, 국제연대 등, 각 분야에서의 해방교육(解放教育)으로 연결되는 것.
- 자기 스스로의 생활과 성장과정을 적음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
- 야간중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들의 연령·언어·문화·취학력·생활경험 등을 고려한다. 학습의욕을 끌어내고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을 생각해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을 생각하게 한다.
- 야간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왜 일본어를 배우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 재일한국인과 귀환자, 또 새롭게 일본에 온 외국인 학생들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
- 일본어교육과 일본어문해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생각한다.
- 재일한국인과 귀환자 학생의 시점에서 교재를 만들고 출신나라의 민화 등도 사용한다.

교재(일본어)의 읽기쓰기를 통해 자기자신에 대해 알고 사회를 알게 된다.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만들어졌다. 그때문에 학생의 실태, 상황과 약을 끈기있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야간중학교는 공립학교이기는 하지만 법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생들의 실태에 맞게 자유롭게 교재를 정하고 운용해 온 면이 있다. 2016년에 교육기회확보법이 성립한 이후, 2017년에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야간중학교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문에 명기되게 되었다.

번역: 김윤정(수도대학도쿄)

翻譯: 金倫貞(首都大学東京)